

光州日熙





kwangju.co.kr 음력 8월 19일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경기침체·민생 '걱정'… 코스피·개혁은 '긍정'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한산한 시골 마을 지방 소멸 우려 농촌 병해충 확산 빠른 대처 촉구 지방선거 조기 과열에 자제 목소리

추석 연휴 대다수 지역민은 '민생의 어려움'을 집 중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여야 갈등 에 대한 걱정도 컸고, 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면 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많 았다. 전남 농촌지역 병충해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지역민들은 주로 민생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 다. 소비쿠폰으로 모처럼 활기가 돌았지만 인구 감 소 등 문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사용할 곳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서삼석(영암・무안・신안)최고위원 원은 "올해 추석, 마을 풍경은 한산했다. 회관 앞에 간간이 자동차만 보일 뿐 인적은 드물었다"면서 "예 년과 달리 추석 아침 성묘객마저 적어 전체 분위기 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 다"고 전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농업재해 인정과 대책, 농 안법·양곡법 등의 시행령에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드 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광주시당위원장도 "물가 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물론 2차 소비쿠폰 지 급이나 최근 코스피 3500포인트 돌파 등 이재명 정 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 다"면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부담과 우려도 큰 것 같다"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진욱(동구남구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 익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였다"면서 "검 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 터 유치 등 광주가 AI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고향 방문을 마친 귀경객들이 광주송정역 입구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기위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길게 대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순천 웃장 등 전남 동부권과 지역구 골목 상권을 찾았는데 도 민이 한결같이 '이재명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효 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이어 "'야당도 국정에 협력해서 하루빨리 민생경 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 부하는 도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민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연휴 기간 섬 지 역을 돌았다고 소개하면서 "50년 전 1970년도에는 청산도 인구가 1만 2000명이었는데, 현재는 2100 명으로 인구, 지방소멸 지역이 됐다"면서 "이 아름 다운 관광자원과 어족 보호를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폭염과 최 고기온 상승으로 전남 곳곳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 해 벼 수확기에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상기후로 인 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바라는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정권교체 후 첫 명절을 맞아 내란극복과 개혁 법안 속도,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바 라는 민심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광주시당 위원장인 서 왕진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 히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는 내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 제시가 다소 아쉽다. 조국혁신당이 '메기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경기가 여전히 침체해 자 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농민은 수확기를 앞 두고 병해충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민 생이 중요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왜 싸우냐는 질책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일부 국회의원 등이 추석 연휴 동안 과도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무 분별하게 SNS에 이를 게재했다가 삭제하면서 지 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픈AI·SK 양해각서 체결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남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관련기사 3면〉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회장 은 최근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서울 종 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 (Memory Supply LOI)와 서남권(전남) AI 데 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SK그룹은 SK텔레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 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할 것이라고 공식 발

앞서 오픈AI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 관에서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 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번 SK와의 MOU도 그 하나로 보인다.

오픈AI는 LLM(대규모 언어모델) 중 전세계

Passion [열정], Vision [점], $oldsymbol{T}_{ ex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사용 인구가 많은 챗GPT 개발사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오픈AI 전 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전남도는 물론 국내 AI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한 SK그룹은 이날 전남 AI 데이터센터 신설을 발표하면서 동 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로 전남은 AI와 재생에너 지 산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픈AI와 SK가 협력해 전남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구 축한다고 밝혔다"며 "전남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 는 역대급 쾌거"라고 반겼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역량을 쏟아 투자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 력을 다하겠다"며 "데이터센터와 함께 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등산 정상 개방 "이 풍경 매일 보고싶다" ▶6면

북스 - '나무의 시대' '리와일딩 선언' ▶14·15면

글로컬 여행성지 전남 - 캠핑관광박람회 ▶22면

이 대통령 "나포 한국인 석방에 외교 역량 최대한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 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일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 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 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 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 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 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